

수능—EBS 연계 교재는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능과 관련해 ‘수능—EBS 연계’라는 말을 자주 접해요. EBS의 고3 수능 교재를 전부 풀었더니 수능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도 봤고요. 수능과 연계된 EBS 교재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연계되는 건지 궁금해요.

수능에 반영되는 EBS 교재, 교재 지문·개념 등 활용해 출제

수능—EBS 연계란 수험생이 EBS 연계 교재와 EBS 강의로 충실히 공부하면 수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EBS 연계 교재·강의를 활용해 수능 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BS가 출간한 수능 문제집 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연계 교재에 해당합니다.

현재 수능과 EBS의 연계율은 50%입니다. 수능 출제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를 지문·자료, 개념·원리, 핵심 제재, 문항 변형 등을 활용해 출제합니다. EBS 교재 문항 그대로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동대부영석고 김용진 교사는 “〈수능 기출의 미래〉 〈FINAL 실전 모의고사〉 등은 완성도 높은 문제집이지만, 수능 연계 교재는 아니다. 연계 체감도는 학생마다 다르다. 최대한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최상위권 학생은 고난도 문항을 집중 공략하므로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도가 낮다고 느낄 수 있다. 고난도 문항은 EBS와 연계되지 않는 편인 반면 시중 교재엔 고난도 문항을 대비한 문항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3개 영역 합 6 등급 이내 정도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수능에서 쉬운 문항을 틀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경우엔 상대적으로 연계 체감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학생의 목표 점수와 현재 성적에 따라서도 연계 체감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